

2) 나인영의 의열투쟁

을사오적을 비롯한 친일파에 대한 경호는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오적의 경호는 삼엄하기 짝이 없었다. 예컨대, 오적이 행차할 때에는 경호병력이 사방을 에워쌌다. 즉, 일본 순사가 앞에서 길을 인도하였으며, 부관 2명은 말을 타고서 뒤를 맡았다. 좌우에는 헌병과 순검들이 겹겹으로 에워싸고 다녔다. 이들의 행차에 줄잡아 6~7명씩의 호위병력이 붙어다닌 것이다. 하지만 을사오적을 차단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졌다. 1907년 3월 25일 아침 8시에 군부대신 권중현(을사늑약 체결시 농상공부대신)은 어느 날과 다름없이 입궐하는 중이었다. 서울의 사동 입구(현 종로구 인사동)를 지날 무렵, 별안간 한 청년이 인력거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 역적아, 네 죄를 아느냐.”라고 외쳤다. 동시에 그는 권중현의 어깨를 붙잡고서 품속의 육혈포를 꺼내어 쏘려는 순간, 총이 주머니에 걸려 멈춰버렸다. 이때 다른 청년 한 명이 재빨리 나서며 권중현의 가슴에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으나 연달아 빗나갔다. 이 청년은 곧바로 체포되어 경무청에 압송되고 말았다.

매국노 권중현의 피격소식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사건은 몇몇 사람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서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당수의 전현직 관료가 가담하여 친일정권의 전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주도인물은 대부분 전남 출신들이었다. 예를 들면, 낙안 출신의(현 별교읍) 나인영(羅寅永 : 나철)과 강진 출신의 오기호(吳基鎬) 등이다. 이들은 힘과 용기를 지닌 의병을 불러모아 오적을 차단하고 친일정부를 전복하고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계획이었다.¹⁾

나인영과 오기호는 사실 의열투쟁과 거리가 먼 개화파 관료들이었다. 하지만, 부국강병을 도모하였던 이들의 꿈은 을사늑약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적 야욕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일제의 구축에 앞서 을사늑약의 체결에 앞장선 매국노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나인영 등은 그들을 차단할 무장력이나 조직이 없었다. 무장력을 갖추려는 과정에서 이들은 박대하(朴大夏)를 추천받았다. 의병에 투신한 박대하는 마침 서울에 올라와 의병항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찾고 있었다. 나인영은 박대하의 “의병은 불속에라도 뛰어든 자신이 있다.”는 말에 감동되었다. 그는 박대하에게 의병의 조직과 무장력을 동원하여 오적을 차단하자고 설득하였다. 박대하 역시 침체일로에 있던 의병항쟁을 확산하기 위해서도 오적의 차단이 효과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들은 민영환의 문인이었던 이홍래(李鴻來), 충주의 이용채(李容彩) 등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다. 나인영과 오기호가 중심이 되어 모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김동필(金東弼)·박대하·이홍래·이용채 등은 전라·경상도에서 의병의 모집과 무기의 구입을 맡았고, 남원 출신의 김인식(金寅植)은 거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였다. 이들을 후원한 사람으로는 학부협판(學部協辦) 민형식(閔衡植), 전 군수 정인국(鄭寅國), 최익진(崔翼軫), 이광수(李光秀) 등이었다.

당시 이들이 오적암살단을 조직하는 과정에 대하여 『태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7일자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 박환, 「羅喆의 人物과 活動」, 『東亞研究』17, 1989.

전라도 낙안군 유생 나인영과 강진군 유생 오기호가 소위 5대신을 암살하고 정부를 전복하여 신정부를 수립할 계획으로 동모(同謀)할 때에 의병에 투입하였던 금산군 박대하, 전 총순(總巡) 이홍래, 대구 김동필, 충주 이용채 등이 의병을 일으키기로 상모(相謀)하였는데 거병하는 것은 천하를 어지럽히므로 유해 무익하니 차라리 5대신을 암살하자고 의결... .

위의 인용문에 보이듯이, 나인영 등이 의병계열과 접촉하여 의열투쟁에 나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의열투쟁은 계몽운동계와 의병계가 연합하여 추진하되, 각 계열의 장점을 살려 준비된 것이다.

당시 나인영 등은 약 200여 명을 확보하여 1907년 2월에 자신회(自新會)라는 비밀단체를 결성하였다. 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조직체가 탄생한 것이다. 그는 자신회의 취지나 오적암살의 정당성을 홍보할 문서를 작성하였다. 나인영 자신은 애국가와 동맹서(同盟書)·참간장(斬奸狀), 이기(李沂)가 자신회의 취지서와 자현장(自現狀), 윤주찬(尹柱瓚)과 이광수가 정부와 통감부·일본군 사령부·각국 영사관 등에 발송할 공함과 내외국민에 보낼 포고문을 각각 지었다. 이 글에서 매국노 처단의 대의와 독립의 보존을 위하여 애국의 혈성(血性)으로 나섰음을 밝혔다.

나인영 등은 의병 출신의 행동대를 객주가에 분산 투숙시켜 기회를 엿보았으나, 좀처럼 뜻한 바를 이룰 수 없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이들은 정예의 요원들을 만들어 오적의 출근길에 저격하기로 결정하였다. 1907년 3월 25일에 거사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네번째의 시도였다. 오기호 등은 참정 박제순, 김동필 등은 내부대신 이지용, 이홍래 등은 군부대신 권중현, 박대하 등은 학부대신 이완용, 서태운(徐泰雲) 등은 법무대신 이하영, 이용채 등은 이근택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각 조는 3~4명으로 이루어진 결사대로서 각자 지정된 장소에서 저격할 계획이었다. 예컨대, 박제순 조는 광화문 해태상, 이완용 조는 돈의문, 이하영 조는 소의문, 권중현 조는 사동 입구에서 각각 대기하였다.

그런데 6개 조 가운데 이홍래가 주도한 권중현 조만이 저격을 시도하였을 뿐 나머지 조는 모두 실패하였다. 삼엄한 경호와 준비 부족이라 할 수 있다. 군부대신 권중현을 저격한 강상원이 체포되었으나, 그는 “죽고 사는 것은 처분에 맡기겠다.”며 의연하게 행동하였다. 그 역시 의병정신으로 당당하게 맞섰던 것이다. 강상원이 체포된 후 일제 군정은 연루자의 색출에 혈안이 되었다. 이에 나인영·오기호 등은 스스로 주모자임을 밝히고 행동대는 죄가 없으니 모두 석방하라고 주장하였다.

나인영 등은 “국적을 제거하는 것이 모살미수죄에 해당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항변하며 연루자 30여 명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나인영(낙안)·오기호(강진)·이기(구례)·윤주찬(강진)·이광수(담양)·이승대(李承大 : 담양)·최동식(崔東植 : 순천)·서정희(徐廷禧 : 광주)·이완수(李完秀 : 담양)·차정오(車正午 : 담양)·이승당(李承唐 : 담양) 등은 전남 출신이었다. 그리고 김인식(남원)·강상원(姜相元 : 금산)·황문숙(黃文叔 : 진산)·황성주(黃聖周 : 금산)·이경진(李京辰 : 진산)·이중학(李鍾學 : 금산)·최상오(崔相五 : 진산) 등은 전북 출신이었다. 전라도인들이 을사오적의 처단을 주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5~10년 유배형을 선고받아 진도·지도 등지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1907년 12월 특사로 석방되었다. 이후 나인영과 오기호 등은 대중교를 창시하여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서정희 등은 광주지역 3·1운동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하 농민운동의 중심인물로 성장하였다. 다시 말해 이들이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한편, 1909년 12월 총리대신 이완용을 저격한 이른바 이재명사건에도 화순 출신의 양한묵(梁漢默)이 관련되었다. 그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유일한 전남인이었다. 이처럼 전라도 사람들이 매국노를 처단하려는 세 차례의 의열투쟁을 주도하였던 것이다.